

# 제주도 방사탑 축조현황과 문화콘텐츠 활용

고수미\*

- I. 머리말
- II. 裨補풍수와 돌탑신앙의 전개
- III. 제주도 방사탑 현황과 보존
- IV. 제주도 방사탑의 문화콘텐츠 전환과 활용
- V. 맺음말

## 국문초록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은 중세화·근대화 과정에서 제주에 유입된 중앙의 문화요소와 섬이라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타 지역과는 다른 문화적 특이점이 공존한다. 최근 제주도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통해 형성된 제주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제주문화의 독창성을 기반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여 고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창출과 문화산업의 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문화다양성의 보존’이라는 명제 안에서 세계 속의 제주 문화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중에서 탑신앙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한다. 제주도 방사탑 역시 전통사회에서 협력을 통해 재앙을 극복하고자 했던 마을공동체 신앙의 상징으로 지역민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과 삶의 방식이 녹아 있어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방사탑의 보존과 문화콘텐츠활용은 지역민이 참여함으로써 문화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으며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적 결속과 같은 다양한 측

\* 제주대학교 사학과 강사. agnes1212@naver.com

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주제어 : 제주문화, 문화콘텐츠, 탐신앙, 돌문화, 방사탑

## I. 머리말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에는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체계가 녹아 있다. 이는 제주의 문화원형을 해석하고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보편적 논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sup>1)</sup> 지역문화는 개별성과 독자성을 생명으로 한다. 물론 개별성 안에 보편성을 담고 있어야 하지만,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지역과 시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문화’로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개별적·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새롭게 해석하여 도출된 요소들을 콘텐츠로 기획·개발하고 지역의 문화를 상품화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문화산업으로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문화상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닌 ‘의미’를 전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상품 제작과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제주도만의 독특한 민속 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외부 문화의 유입·융합·정착 과정은 제주도의 전통문화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다양한 문화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독창성을 지니게 되었다. 제주의 전통문화란 ‘제주토박이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일정한 삶의 방식 안에서 만들어 온,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독자성이 강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전승해 온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역사문화자

---

1) 전영준, 「제주 照里戲의 역사문화원형 복원과 축제콘텐츠 개발」, 『지방사와 지방문화』 20권2호, 역사문화학회, 2017, 261쪽.

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sup>2)</sup> 최근 제주도는 이러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통해 형성된 제주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제주문화의 독창성을 기반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하여 고유문화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창출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문화다양성의 보존’이라는 명제 안에서 세계 속의 제주 문화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문화콘텐츠 산업은 ‘문화의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원형과 활용 가능성의 가치를 찾아내 매체에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과정’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이 그 원형질을 유지하고 이것이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으로 결합해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으로의 콘텐츠 기획과 개발이 가능하다.<sup>4)</sup>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문화 요소에는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신화, 생활양식, 개인의 기록, 역사 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제주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중에서 마을 공동체 신앙의 하나인 防邪塔)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주도 방사탑은 제주민과 마을공동체의 裨補풍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역사문화 자원으로, 마을의 안녕과 보호를 기원하는 공동체 생활문화가 접목되어 있어 역사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제주도 방사탑은 마을공동체 신앙으로 虛한 곳을 補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煞을 막는 등 裨補의 기능과 防邪의 기능을 갖고 있다.<sup>6)</sup>

2) 김동진, 「제주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방안」, 『지방사와 지방문화』 6권 2호, 역사문화학회, 2003, 319-320쪽.

3)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방향」, 『탐라문화』 4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164-165쪽.

4) 전영준, 위 논문, 2015, 168쪽.

5) 방사탑에 대한 명칭은 마을마다 다양하게 불린다. 본고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방사탑’으로 통칭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6) 마을에서 볼 때 지형이 사방으로 트여 평평하게 펼쳐져 있을 경우 虛하다고 표현하였으며, 바다 또는 오름이 이상한 형태로 보이는 경우에는 厄이 비친다고

현재까지 제주도 방사탑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현존하는 방사탑에 대한 현지조사와 구술자료를 통한 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강창언은 1995년 21개 마을에서 38기의 방사탑을 조사하여 각 지역에서의 명칭과 형태, 분포 상황, 기능 등을 현지조사와 구술조사를 병행하여 정리하였다.<sup>7)</sup> 이후 강창언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답과 거옥대 등이 현존하거나 있었던 곳을 문헌조사와 구전을 통해 사전조사한 후 현지 조사를 거쳐 1999년 21개 마을에서 35개의 방사용 돌탑이 현존하고 4기의 방사용 돌탑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sup>8)</sup> 멸실된 방사용 돌탑으로는 표선면 성읍1리의 거옥대 1기를 비롯해 가시리 거옥대 2기, 남원읍 방구령 거옥대 1기이다. 하지만 문헌이나 구전에 대한 조사의 폭(또는 다양성)과 객관성의 근거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다. 이후 강정효는 2008년 현지조사를 통해 현존하는 70기의 방사탑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현존 방사탑 외에도 방사탑의 존재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마을지명까지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103개 마을에 방사용 탑의 존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sup>9)</sup> 이런 점은 방사탑이 제주 전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에서는 裨補풍수의 전개와 돌탑신앙에 대해 살펴본 후 제주도의 방사용 탑에서 알 수 있는 제주인들의 비보풍수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까지 70기 정도의 방사탑이 조사되어 있지만 그 중 제주도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된 17기 방사탑을 중심으로 보존현황을 살펴본 후,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하겠다.

표현하였다. 강정효, 『제주거옥대-제주자연마을의 방사용 돌탑보고서』, 각출판사, 2008, 34쪽.

7) 姜彰彦, 「濟州道の 防邪用 塔」, 『제주도사연구』 4집, 제주도사연구회, 1995.

8) 정은선, 『제주도의 답과 거옥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미술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99.

9) 강정효는 2008년 현지 조사를 통하여 총 70여 기의 방사탑에 대해 조사했다. 이 외 아직 찾지 못한 방사탑과 허물어져 없어진 방사탑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강정효, 앞 책, 2008. 참조.

## II. 裨補풍수와 돌탑신앙의 전개

裨補풍수는 지리적 조건을 보완하는 인문적 행태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된 삶의 터전을 가꾸는데 지향점을 둔다.<sup>10)</sup> 비보의 역사적 기원은 고려시대 裨補寺塔說에 있다. 산천의 順逆을 살펴 地德의 衰處나 逆處에 사찰·탑·불상을 세워 자연조건을 보완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裨補풍수로 발전하여 지역에 따라 탑·숲·조산·장승·못 등 유형이 다양화되었다.<sup>11)</sup> 나말여초 선종의 확산과 더불어 풍수사상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지방 호족세력이 비보설을 수용하면서 각 지역에 비보사탑이 창건되었다. 고려는 山川裨補의 성격이 강했으며, 佛力과 풍수의 地力을 기반으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정책 운영의 기조로 삼았다. 『高麗史』에 보이는 裨補風水에 대해 살펴보면, 943년(태조 26) 훈요십조 2조<sup>12)</sup>와 5조<sup>13)</sup>에서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면서 地德과 水德을 강조하고 도선의 비보사탑설을 따랐다. 또한 개경에 열 곳의 비보사찰을 세워 國家裨補所를 두고 개경의 취약한 지리적 조건을 보완하려고 하였다.<sup>14)</sup> 1174년(명종 4)에는 三蘇造成都監을 설치하여 延基宮闕造成官을 배치했는데 국토와 왕조의 延基를 위한 裨補壓勝風水策이라고 볼 수 있다. 三蘇는 左蘇 白岳山, 右蘇 白馬山, 北蘇 箕達山이다.<sup>15)</sup> 1198년(神宗 원년)에는 山川裨補都監을 설치하여 산천의 도움으로 나라의 운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곳곳에 造山·築墩·壓勝 등의 국토관리를 하였다.<sup>16)</sup>

10) 최원석, 『한국의 풍수와 비보』, 민속원, 2004, 17-18쪽.

11) 최원석, 앞의 책, 민속원, 2004, 41~43쪽.

12)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2. “其二曰 諸寺院皆道洗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洗云 吾所占定外妄加創造則損薄地德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候后妃朝臣各稱願堂或增創造則大可憂也 新羅之末競造浮屠衰損地德以底於亡可不戒哉”

13) 『高麗史』 권2 세가2 태조 2. “其五曰 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 西京水德調順爲我國地脉之根本大業萬代之地”

14) 『高麗史』 권78, 志32, 食貨, 田制.

15)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三蘇造成都監. 明宗四年 制 左蘇 白岳山右蘇白馬山北蘇箕達山置延基宮闕造成官”

16)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山川裨補都監. 神宗元年 宰樞及重房崔忠獻等集術士議國內山川裨補延基事遂置都監”

이는 기존 사탑비보를 주관하던 비보소보다 기능적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1389년(공양왕 원년)에는 十學에 敎授官을 두면서 풍수음양학이 학문으로 성립되어 書雲觀에 分隸되었다.<sup>17)</sup>

고려시대 풍수사상은 國業을 연장하기 위한 國都風水와 마을과 고을의 입지선정을 위한 都邑風水 등 陽基風水가 발달하였으며, 延基를 위한 裨補壓勝風水策이 성행하였다. 풍수지리를 담당하는 관청이 설립되고 지리를 담당하는 관리가 등용되었으며 중국에서 도입된 풍수지리서로 시험을 치루는 등 풍수지리학이 전문분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토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규모의 풍수, 도읍이나 마을입지 선정 풍수, 집터나 묘자리 등 개인적 풍수에 이르기까지 공간 규모 별로 풍수지리가 다양하게 적용되었다.<sup>18)</sup>

조선에는 환경구성 원리로 풍수적 비보가 수용되었다. 궁궐에 이르는 主山의 來脈과 도성의 藏風의 조건을 비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비보의 환경적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sup>19)</sup> 郡, 縣의 邑城은 대부분 산을 등지고 축성되었는데 이 뒷산을 鎭山이라고 한다. 鎭山은 풍수지리적 기능과 군사상 자연적 방어책의 기능을 하였다. 더불어 읍성에는 水災를 막는 풍수물로 石牆이 건립되었다.

조선 후기 인구 증가와 집중화, 생산력 증가에 따른 읍성의 확장으로 촌락이 생산단위로서 형성되면서 洞祭 등 무속적 관행이 민간에서 확산되었다.<sup>20)</sup> 郡·縣 단위의 祭儀가 촌락 단위로 민간신앙화 되면서 읍성의 石牆 대신 주로 돌탑·숫대·장승 등이 마을 단위로 세워졌다.<sup>21)</sup> 장승은 주로 裨補·辟邪, 숫대는 水災·火災 방지 등 주로 풍수의 목적으로 마을 어귀에 설치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마을신앙으로 자리 잡

17)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十學 恭讓王元年 置十學敎授官分隸 禮學于成均館 樂學于典儀寺 兵學于軍候所 律學于典法寺 字學于典校寺 醫學于典醫寺 風水陰陽等學于書雲觀 吏學于司譯院”

18) 崔昌祚, 『한국사』 16권, 고려전기의 종교와 사상, 국사편찬위원회, 2002, 323-326쪽.

19) 최원석, 앞의 책, 민속원, 2004, 123-124쪽.

20) 鄭勝謨, 「조선후기의 문화」 『한국사』 35권, 국사편찬위원회, 2002, 172쪽.

21) 鄭勝謨, 앞의 책, 2002, 170쪽.

있다. 이 가운데 돌탑유적은 관련 제의를 수반한 사례가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그 전승 양태도 다양하여 풍수와 민간신앙의 측면에서 전통적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돌탑신앙에는 한국 마을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무속·불교·풍수지리적 요소와 장승·숫대신앙 및 거북신앙·서낭(성황)신앙·수목숭배 등이 종합적으로 녹아 있어 문화권의 설정 및 민속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sup>22)</sup> 돌탑신앙과 연계된 裨補의 유형은 크게 水口裨補, 地勢裨補, 形局裨補, 火氣裨補, 殺氣裨補, 地名裨補 등이 있다.<sup>23)</sup> 돌탑은 우리나라 전역에 세워졌는데 특히, 충북과 전북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현재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지역에 각각 20개소, 전남 일대 30여 마을, 충남·경북·경남·제주지역에 각각 130~150개 마을, 전북 220여 마을, 충북 280여 마을에 조성되어 있다. 특히 금강 상류인 전북 무주·진안·장수를 비롯하여, 충북·옥천·영동·보은·청원, 충남 금산 등에 전국 탑의 약 50% 가량이 분포해 있다.<sup>24)</sup>

마을돌탑이 지니는 기능이나 성격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제주도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마을裨補의 성격을 갖는다. 즉, 마을로 들어오는 액, 질병, 煞, 호환, 화기 등을 막는 마을신앙의 대상물이자, 마을의 허한 지형의 방위나 보완을 위한 비보물 혹은 비보신앙의 대상으로 이해된다.<sup>25)</sup> 제주도에서도 ‘방사용 탑’을 해안가와 마을의 虛한 곳에 쌓았다. 마을마다 ‘답’, ‘답다니’, ‘거육대’, ‘돌하르방’, ‘영등하르방’,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주로 마을의 안녕을 수호하며 사각을 막거나 허한 곳을 보완하는 것을 비롯해 전염병 예방, 화재 예방, 해상 안전, 우마번성, 홍수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이는 裨補와

22) 강성복, 「한국의 탑신앙에 관한 연구」, 『제12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수상논문집), 전국문화원연합회, 2009, 5-6쪽.

23) 최원석, 앞의 책, 민속원, 2004, 43쪽.

24) 강성복, 『탑신앙』, 국립무형유산원, 2015, 16쪽.

25) 김형효, 「돌탑[石塔]」,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1』, 국립민속박물관, 2010, 233쪽.

防邪의 기능으로 타지역의 돌탑이나 장승, 솟대 신앙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sup>26)</sup>

제주도민에게 늘 피해를 주었던 재난은 모두 지리적 환경과 연관이 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 지형 중에서 주변이 넓게 펼쳐져 평평한 곳을 虛하다고 보아 ‘厄이 비친다’고 하면서 방사용 탑을 쌓았으며, 바다에서도 시체가 자주 떠밀려와 厄이 들어온다고 여겨 해안가에 방사용 탑을 쌓았다. 탑 외에도 마을입구에 다양한 형태의 방사신앙체를 만들어 놓았다.<sup>27)</sup> 각 마을에 존재하는 神堂<sup>28)</sup>은 주로 마을과 개인의 보호 기능, 방사탑은 방어 기능을 하는 심리적·이중적 방어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은 공동신앙생활을 통해 공동운명체의 발전을 기원했으며 부락간의 단결을 도모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였다.

### Ⅲ. 제주도 방사탑 보존 현황

#### 1. 현존 방사탑 현황

방사탑은 풍수지리적으로 마을 어느 한 方位에 불길한 징조가 비친다거나 어느 한 지형이 虛하여 허한 방위를 막아야 마을이 평안하게 된다는 믿음에서 쌓은 돌탑으로 마을 신앙이다. 탑은 주로 좌우, 음양, 남북 대칭으로 쌓는 것이 일반적이며 탑 정상부에 새 모양(거북, 까마귀)이나 사람 얼굴 형상의 돌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대정읍 인성리와 무릉리, 영평하동에 있는 방사탑 정상부에는 사람 얼굴 모양의 석조

26) 강성복, 앞의 책, 2015, 9쪽.

27) 방사신앙체와 관련하여 돌하루방, 동자복, 서자복 등 미륵불, 방사탑, 방사축담, 돌코냉이 등 방사석 등을 들 수 있다. 양종렬, 「제주도(島) 문화관광 상품자원으로 방사신앙체의 몇 가지」, 『인류학·고고학 논총』, 학연문화사, 2012, 129쪽, 참조.

28) 각 마을의 본향당을 비롯하여 해신당, 용왕당, 할망당, 일똥당, 여드렛당 등 마을과 신앙민을 관장·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신당이 포함된다.



물이 세워져 있어 ‘하르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골앗마을 5호 방사탑 위에는 나무로 만든 솟대가 세워져 있다. 탑, 답, 답다니, 거욱, 거욱대, 가마귀, 가마귀동산, 극대, 액탑, 매조자기 등 마을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나 기술, 인력 등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돌탑을 쌓기 전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돌탑을 쌓을 때는 각 가정마다 참여 인원수를 정했으며, 불참시에는 그에 맞는 곡물이나 돈을 내었다. 돌탑을 쌓을 때는 돌탑 속에 돼지·무쇠솥·청동주걱·농기구 등을 함께 묻었다. 돼지는 무엇이나 잘 먹으며 잡귀들이 가장 좋아 하는 음식으로, 액을 먹거나 먹힘으로써 마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무쇠솥은 솥이 액운을 잡아 삶아 없앤다는 의미이며, 청동주걱과 농기구는 쇠의 강함을 통해 厄氣를 쫓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방사탑은 한번 쌓으면 허물어지기 전에는 새로 쌓거나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었지만 허물어지면 다시 쌓았다.

현재 17기의 방사탑이 1995년 8월 제주도 민속자료 제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제주도 지정 민속자료 17기

번호	탑	명칭	형태	위치	규격(m)		머릿돌	비고
					기단폭	탑신높이		
8-1	골앗마을탑-1	탑, 답	원뿔대형	제주시 이호동	4.2	1.9	○	
8-2	골앗마을탑-2	탑, 답	원뿔대형	제주시 이호동	2.6	3.1	○	
8-3	골앗마을탑-3	탑, 답	원뿔대형	제주시 이호동	3.9	3.5	○	
8-4	골앗마을탑-4	탑, 답	불규칙형 (2단)	제주시 이호동	3.7	4.1	○	
8-5	골앗마을탑-5	탑, 답	원뿔대형	제주시 이호동	2.8	2.9	○	탑 위에 나무 솟대 세움

8-6	몰래물탑-1	탑, 답, 까마귀 동산	원뿔형	제주시 도두2동 몰래물		4.2	○	기단은 자연석 암반 활용
8-7	몰래물탑-2	탑, 답, 까마귀 동산	원뿔형	제주시 도두2동 몰래물	4.4	4.0	○	탑 위에 머릿 돌 2개 세움
8-8	용수리탑-1	세원탑	원뿔대형	한경면 용수리	5.0	3.7	○	
8-9	용수리탑-2	화성 물탑	원뿔대형	한경면 용수리	4.9	3.4	○	
8-10	신흥리탑-1	오다리 탑	원뿔대형	조천읍 신흥리	4.3	3.4	○	양을 상징하는 머릿돌 세움
8-11	신흥리탑-2	생이탑	원뿔대형	조천읍 신흥리	3.7	2.4	×	음을 상징
8-12	무릉리탑-1	탑, 답	원뿔대형	대정읍 무릉리	3.0	1.8	○	
8-13	무릉리탑-2	탑, 답	원뿔대형	대정읍 무릉리	2.8	1.5	○	
8-14	무릉리탑-3	탑, 답	원뿔대형	대정읍 무릉리	4.6	1.7	○	
8-15	무릉리탑-4	탑, 답	원뿔대형	대정읍 무릉리	3.3	2.5	○	
8-16	인성리탑-1	거옥대	원뿔대형	대정읍 인성리	2.1	2.0	○	얼굴 모양 머릿돌 세움
8-17	인성리탑-2	거옥대	원뿔대형	대정읍 인성리	2.3	2.3	○	

### 1) 골왓마을 방사탑

골왓마을은 현재 이호2동에 있는 6개의 자연부락 중 한 곳으로 5기의 방사탑이 세워져 있으며 민속자료 제8-1~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북풍이 불어 모래 구렁이 형성된 뒤로 마을에 질병이 유행하여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화재가 빈발하는 등 재난이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이 이를 막기 위해 탑을 쌓았다고 한다. 지형적으로도 마을 북쪽이 지대가 낮고 바다가 훤히 들여

다보여 이곳으로 액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여 북쪽 경작지에 동서로 나란히 4기를 쌓았고,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마을 입구에 5호를 쌓았다. 4기의 탑 위에는 새 모양의 돌을 세웠으며 5호에는 나무로 만든 솟대를 세워놓았다.<sup>29)</sup>

5기의 방사탑 중 1호가 가장 크고 세 개의 받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받담위에 세워져 있다. 2호와 3호는 현재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길가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4호는 3호방사탑에서 동쪽으로 도로 건너편 식당 입구 주차장에 있는데 나무에 가려 보이지도 않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마을 분들 중에도 4호 방사탑의 존재와 현재 위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보존방안과 홍보가 필요하다. 5호는 4기가 세워져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데 꼭대기에는 나무로 만든 새 형상의 거옥을 세워 놓았다.



〈그림 1〉 골앗마을 방사탑 5기

## 2) 몰래물 방사탑

도두2동 몰래물 마을에 2기가 세워져 있으며 민속자료 제8-5, 제8-6호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에서 북쪽이 虛해 북쪽바다에서 들어오는 액

29)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참조. <http://jeju.grandculture.net>



〈그림 2〉 몰래물 방사탑 2기

운을 막기 위해 쌓았는데 받담으로 연결되어 동서로 나란히 서 있다. 동쪽에 있는 동탑 정상부에는 새 형상의 돌이 놓여 있고, 서쪽에 있는 서탑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다. 몰래물 방사탕에 대한 내용은 도두 본향당 본풀이에 언급되어 있다.

① “... 몰래물은 언물동산 좌정 흐던 장징내서(전라남도 강진) 들어오던 서출노비 흑곰이 조곰이, 알로 느룩스민 요왕태즈 황제국 탑발안에 기미창 할마님, 흐두 두두 수물두두(二十二道) 지관한집(地官大王), 불턱 츠지, 올래츠지, 정월 나민 과세문안 봄 나민 보리양곡 흐여들이민(수확하면) 징심(정심)식스로 ...”<sup>30)</sup>

② ... 밋을에선 오름허리에 꽃낭 싱그고 탑뭇고 흐연 밋을 본향으로 이흐게 흐엿습네다. ... 활선동산 신임제석은 스방데레 슬피명 하간 디서 이 밋을에 들어오는 곳인 거 나쁜 거를 미리 방처(防處)흐곡 제 초흐명 활에 쌀(화살) 흐나 바수왕(받쳐서) 짓흐는 할마님...<sup>31)</sup>

①번 본풀이에 보이는 탑발은 현재 몰래물 방사탑이 있는 곳으로 생각된다.<sup>32)</sup> 몰래물 방사탑 2기가 받담에 의지해 나란히 서 있다. 방사탑

30)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355쪽; 제주시 도두동 女巫 67세 이춘아님 채록자료.

31) 진성기, 앞의 책, 2016, 357쪽; 제주시 삼도동 女巫 45세 문옥선님 채록자료.

에도 ‘기미창 할마님’이라는 신이 좌정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번 본풀이는 방사탑에 대한 주민들의 관념을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마을에 들어오는 액을 방지하며 당신이 활과 화살을 이용해 막아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 3) 용수리 방사탑

용수리 방사탑은 용수포구 양쪽으로 1호, 2호가 세워져 있는데 민속자료 제8-8, 제8-9호로 지정되어 있다. 2기 모두 꼭대기에 새(매) 모양의 돌이 서쪽을 향해 놓여 있어 마을에서는 ‘매조재기’라고 부른다. 바다 쪽인 서쪽이 虛해서 송장이 자주 떠밀려와 이를 막기 위해 포구 남쪽과 북쪽 암반 위에 하나씩 세웠다. 1호는 세원이라는 원이 있는 곳에 세워져 ‘세원탑’이라고 하며 탑을 쌓을 때 멩에를 함께 묻었다. 멩에는 단단한 줄과 나무로 만들어져 마을의 虛한 곳을 강하게 補한다는 의미가 있다. 2호는 남쪽에 용천수인 화성물이 있어 ‘화성물탑’이라고 하며, 탑을 쌓을 때 보습을 함께 묻었다. 보습은 쇠의 강함을 통해 厄氣를 꺾는다는 의미가 있다. 방사탑은 포구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으며 포구로 드나드는 선박이 무사히 통과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재앙을 막는 역할



〈그림 3〉 용수리 방사탑 2기

32) 방사탑이 있던 지역은 탑밭, 탑동산, 답다니, 탑당고슬, 격대와, 솔대왓 등의 지명으로 불렸다. 강정호, 앞의 책, 2008, 67-71쪽 참조.

을 하였다. 차귀도, 수월봉, 당산봉이 보이며 주변에 차귀진·우두연대·당산봉수 등의 방어시설이 있다.<sup>33)</sup>

#### 4) 신흥리 방사탑

신흥리 방사탑은 5기가 있는데 동서남북중앙 五方位로 세워져 있다. 이 중 2기가 민속자료 제8-10, 제8-11호로 지정되어 있다. 1호는 남쪽 포구인 큰개 가까이 있어 ‘큰개담’, ‘생이담’이라 부르며 꼭대기가 오목하게 패여 있어 陰을 뜻하는 ‘陰담’이라고도 한다. 2호는 북쪽 새백



〈그림 4〉 신흥리 방사탑

(흰색 삼각형은 지정, 검정 테두리 삼각형은 비지정 방사탑을 표시하였다.)

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제주시 VI』, 2014, 368-381쪽 참조.

개 오다리코지 가까이에 있어 ‘오다리답’이라고 하며 꼭대기에 돌을 세워 놓아 陽을 뜻하는 ‘양탑’이라고도 한다. 불래낭할망당 앞에 있는 방사탑은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현 위치에 다시 쌓았으며 나머지 2기도 새로 쌓은 방사탑이다.<sup>34)</sup>

### 5) 무릉리 방사탑

무릉리 방사탑은 무릉1리 ‘앞논’ 지경에 4기가 있으며 민속자료 제 8-12~제8-15호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에서 남쪽 방향에 위치하는데 남북방향에 일직선으로 서 있다. 1호가 가장 남쪽에 있고 1호와 2호 간격은 68m, 나머지는 대략 30m 간격을 두고 위치한다. 남쪽 바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액을 막고, 서쪽 방향이 虛하다고 하여 補하고자 1910년에 쌓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탑을 쌓을 때는 쟁기의 벼, 보습, 솔 등을 묻어 부정과 액운을 막았다. 1호는 상단에 사람 형상의 돌을 세워 놓았고, 2호는 새(까마귀) 형상의 돌을 세워 놓았다. 3호는 훼손이 심해 원래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4호 상단에는 아무것도 세워 놓지 않았다.<sup>35)</sup>



〈그림 5〉 무릉리 방사탑 4기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제주시 VI』, 2014, 705-715쪽. 참조.

3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서귀포시 V』, 2014, 64-3-644쪽; 디지털 서귀포 문화대전 참조. <http://seogwipo.grandculture.net>.

## 6) 인성리 방사탑

인성리 방사탑은 4기가 있는데 이 중 2기가 제주도 민속자료 제8-16, 제8-17호로 지정되었다. 단산과 모슬봉 사이에 있는 ‘알뽕디’라는 넓은 농지 사이에 동쪽과 서쪽 사이에 4기가 나란히 서 있다. 마을 남쪽의 방위가 虛해서 마을로 잡귀가 들어오고 사악한 기운이 비친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세웠다. 탑 위에 사람 얼굴 형상을 한 석상을 올려놓았으며 마을에서는 ‘거욱대’, ‘하르방’이라고 부른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모슬포 신명훈련소 축조에 원래 있던 방사탑 돌을 사용하여 훼손되자 불이 자주 나고 기축이 병들어 죽는 등 마을에 재앙이 자주 일어나 이를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쌀을 모아 1959년에 2기를 복원하였고, 2001년에 2기의 탑이 복원되었다. 1959년에 복원한 2기의 방사탑이 민속자료로 등록되었고, 2001년에 복원된 2기는 비지정방사탑이다.<sup>36)</sup>



〈그림 6〉 인성리 방사탑

이 외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방사용 돌탑이 현존하고 있는 마을을 보면, 내도동(1기), 영평하동(1기), 애월읍 고성리(1기), 광령리 사라마을(1기), 소길리(1기), 용흥리(1기), 고내리(2기), 신엄리(1기), 하가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서귀포시 V』, 2014, 71 4-175쪽; 디지털 서귀포 문화대 전 참조. <http://seogwipo.grandculture.net>



리(1기), 봉성리(1기), 구몰리마을(1기), 한림읍 어음2리(3기), 한경면 고산리 전답동(2기), 두모리(1기), 한원리(2기), 청수리(4개), 조천읍 신흥리(5기 중 3기), 우도면 하고수동(2기), 주흥동(2기), 영일동(2기), 동청진동(1기), 대정읍 인성리(4기중 2기), 신도리(2기), 상모리(1기), 안덕면 화순리(3기), 덕수리(3기), 성산읍 시흥리(1기), 수산2리(1기), 표선면 성읍2리(1기), 남원읍 신흥리 고수동(1기), 서귀포시 강정동(1기), 대포동(3기) 등 약 32개 마을에 53기의 방사탑이 있다. 이 중 영평하동, 고내리, 조천읍 신흥리 일부, 한원리, 신도리, 덕수리, 수산2리 등의 방사용 돌탑은 최근 20여 년 사이에 복원된 것들인 반면, 애월읍 하귀리와 상귀리, 조천읍 신촌리의 방사용 돌탑은 개발과정에서 훼손되어 약간의 형태만 남아있다.<sup>37)</sup>

## 2. 현존 방사체

제주도는 방사용 탑 외에도 방사벽·방사석·숲 연못 형태의 다양한 방사신앙체가 있다. 방사용 탑과 같은 기능을 하는 마을비보로, 비지정 문화재이긴 하지만 제주인들의 풍수관념에 대해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우선 방사담은 벽의 형태이다. 봉개동 방사벽은 돌로 쌓은 담 위에 새 모양의 돌 2개가 북쪽을 향해 나란히 세워져 있다. 방사벽 아래 분향당이 있었는데 불이 나자 당을 현재 위치로 옮기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세웠다고 한다.<sup>38)</sup> 낙천리는 화재예방을 위해 나무와 방사담·방사탑을 방사체로 이용하였다. 1920년경 새물동네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자 풍수지리상으로 東強西弱으로 인한 재해이며 또한 ‘고산리 당산봉의 봉우리만 보여서 안 좋다’고 여겨 1940년경 팽나무를 심고 성담을 쌓았다고 한다. 그리고 성담 옆 400m 근처 오빠미물 옆에는 방사탑을 쌓았다고 하는데 현재 방사탑은 허물어지고, 팽나

37) 강정효, 앞의 책, 2008, 참조 2008년 현지조사 자료여서 비지정 방사탑 중 현재 허물어지거나 훼손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38) 봉개 분향당의 화재와 관련하여 임조방장 설화가 전해진다.

무는 2002년 북제주군 보호수로 지정되었는데 태풍에 고사되어 성담만 남아있다.<sup>39)</sup> 서귀포시 예레동에 있는 하예하동담은 약 100여 년 전에 ‘악한 기운이 남서쪽에 있는 범섬에서 온다고 하여 축담(성담)을 큰코지에 쌓은 것으로 주민들은 ‘방사탑’, ‘담’이라고 부른다. 큰코지는 당포(당개) 바닷가 끝에 있는 동산으로 당포연대가 있고 선사시대 주거지인 바위그늘은거지가 있다. 범섬은 고려후기 목호의 난이 일어났을 때 목호들이 마지막까지 고려 정부군과 항전했던 섬으로 이런 역사적 사건이 주민들에게 나쁜 기운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탑이나 담 외에도 ‘돌코냉이(猫石)’이라고 하여 고양이 형상으로 깎은 돌을 마을 입구에 놓았는데 한경면 두모리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마을 입구에 놓여 있다. 역시 防邪의 기능으로, 두모리에는 차귀도가 쥐의 형상으로 보여 쥐의 형태를 막지 않으면 마을에 사악한 厄이 들어와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돌코냉이를 마을에서 가장 지형이 높은 곳에 차귀도를 향해 세웠다. 신엄리 또한 악령이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을 어귀에 돌코냉이를 세웠다.<sup>40)</sup> 애월읍 금성리는 돼지 형상의 조형물을 세워 놓았다. 과거 금성리는 말을 많이 길렀는데 자꾸 병에 걸려 죽거나 번식이 잘 안돼서 연유를 찾으니 금악리 검은오름이 거미 형상으로 비친다고 하여 돼지 형상의 방사석을 세운 후에는 마을이 평안해졌다고 한다.

애월읍 납읍리는 남쪽에 있는 금악봉 때문에 화재가 빈번하여 나무 숲을 조성했다. 오라동 연미마을은 남조봉의 火神이 비취 화재가 많이 발생하자 마을에 연못을 판 후로 화재도 없고 마을이 편안하게 되었고 연못이 매우 크고 물이 맑아 ‘淵味’라고 부른다고 한다. 서귀포시 강정동에는 ‘뭇병디뭇’과 ‘통물뭇’이 있는데 강정에서 보이는 섯섬, 문섬이 火峰으로 비취 만든 연못이다.<sup>41)</sup>

39) 양종렬, 「제주도(島) 문화관광 상품자원으로 방사신앙체의 몇 가지」, 『인류학 고고학 논총』, 학연문화사, 2012, 136쪽.

40) 양종렬, 위의 책, 2012, 137-139쪽.

41) 강정효, 앞의 책, 2008, 35-36쪽.



〈그림 7〉 몽개동 방사벽. 두 기의 거육이 북쪽을 향해 서 있다.

#### IV. 제주도 방사탑의 문화콘텐츠 전환과 활용

최근 제주도에서는 제주문화의 원형을 찾기 위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화부터 역사시대의 문화콘텐츠를 구현하는 작업과, 고유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확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주 문화가 지닌 독창성을 기반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확보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의 원천이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에 지역의 문화 원형을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

를 결합시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독창적인 문화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상징 자문위원회와 발굴의원 회의, 도민 여론조사<sup>42)</sup>를 거쳐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선정·편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활용방안도 모색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제주의 문화상징을 개발하고 제주 문화유전자를 찾는 다. 둘째,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전통문화에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제주문화에 대한 긍정적·호의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한다.<sup>43)</sup> 선정된 상징물은 '한라산, 해녀, 제주어, 제주4·3,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굴, 오름'으로 '제주문화의 원형으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며, 활용 및 콘텐츠화 개발방안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44)</sup> 제주문화상징 활용방안으로 '제주문화를 대표하는 제주상징의 디지털 이미지 구축, 우표 및 그림엽서 발행, 지속적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발 및 정보교류, 어린이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제작, 제주상징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지원, 제주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제주상징 방송프로그램 및 동영상 제작' 등을 제시하였다.<sup>45)</sup> 제주문화상징물은 제주인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해 온 문화로 그 자체가 문화관광자원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문화원형으로서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콘텐츠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보존과 활용은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문화콘텐츠 제작과정에 포함되는 문화적 요소는 생활양식, 전통문화,

42) 제주문화상징(안)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는 2007년 10월 17일1~1월 15일 사이 성인 19세 이상 제주도민 525명(일반인 460명,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3) 김순이,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선정 기준」, 『제주문화 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자료집』,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1.9.

44) <道, 한라산 등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최종 선정>, 제주의 소리, 2008년 3월 9일.

45) 주강현, 「제주문화상징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제주문화 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자료집』, 제주문화예술재단, 2008.1.9.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개인의 경험, 역사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제주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과 관점, 생활양식 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해내는 활용과정을 거쳐야한다. 이는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존만으로는 부족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sup>46)</sup> 제주문화콘텐츠 개발은 우선 제주문화원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문화적 역량과 가치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콘텐츠 활용의 기본적인 요소로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유형에 알맞은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하여 애니메이션·영화 대본, 게임, 축제기획 등과 표현 방법을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원형 단계에서 충실한 연구와 역사적 고증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여 콘텐츠 제작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성과 현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민이 만들고 향유했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도민과 마을이 배제되지 않고 주체가 되어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여기에 기존 제주도 관광인프라와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활용 또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제주도의 방사탑은 돌문화와 신앙분야 두 곳에 선정되어 있다. 선정 배경 및 의미를 보면 ‘돌로 된 화산섬, 제주문화의 또다른 아이콘’이란 내용으로 돌하르방, 돌담, 잣성, 산담 등과 함께 돌문화에 포함되어있다. 또한 신앙분야는 ‘마을의 액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쌓은 탑,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되었다.<sup>47)</sup> 따라서 방사탑은 제주의 돌문화와 신앙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역사문화자원

46) 최지화·김면, 「제주의 돌문화 가치와 지역중심 문화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 - 돌하르방과 동자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권 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18, 47쪽.

47) ‘제주 10대 문화상장’을 선정하기 위해 앞서 ‘제주 99개 문화상장’을 먼저 선정했는데 그 중 방사탑은 신앙·언어·예술분야 25개중에 포함되었다.

으로, 마을 공동체안녕과 풍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을 담고 지역민 전체의 협력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은 공동체신앙의 한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 마을에 있었던 신당과 더불어 주민들의 심리적 방어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현재 민속자료로 지정된 17기 방사탑 중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이호동이 유일하다. 이호동에는 5기의 방사탑 외에도 용천수 3곳이 있고 신당 2곳, 이호해수욕장과 원담 등 문화적 자산이 많다. 마을에서는 이들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탐방길 프로그램을 만들어 5호 방사탑 앞에 세워놓았지만 현재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지 않아 좀 더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 8〉 이호동 마을길 탐방 코스 표지판

신흥리는 역사문화 자원이 비교적 다양하게 남아있는 곳이다. 해안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할망당 앞에 방사탑이 있었는데 해안도로가 놓이면서 방사탑을 다시 쌓았다. 5기의 방사탑 중에서 3기는 다시 쌓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방사탑 2기만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방사탑은 원래 허물어지면 다시 쌓았던 공동신앙물로 후에 다시 쌓았다고 해서 마을 공동체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낮아졌다고는 볼 수 없다. 5기의 방사탑 외에도 환해장성, 왜포연대, 불턱, 신당, 용천수, 아름다운 해안도로 등 다양한 성격의 문화자원이 많다. 여기에 마을의 주 생산물

을 활용한 가공식품 등 지역특산품과 유·무형 문화재들을 연계하여 신흥리만의 ‘문화마을’ 만들기가 가능하다. 마을 자체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올레길 걷기과 연계한 콘텐츠 활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사탑과 관련해서 신흥리 본향당인 ‘볼래낭할망당’ 본풀이<sup>48)</sup>와 연계하여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다. 현재도 마을해녀들이 해마다 이월 초하루에 잠수굿을 하고 있으며 堂神은 해녀뿐 아니라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이기도 하다.

용수리 해안가에 위치한 2기의 방사탑에는 각각 거옥이 설치되어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호종단 설화를 스토리텔링화 하면, 호종단이 돌아가는 길에 한라산신의 명령으로 호종단의 배를 공격하여 수장시켰던 까마귀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마을뿐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탑은 돌문화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마을에 한정하지 않고 제주의 돌문화와 연계한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주의 돌문화와 관련해서 돌문화공원과 제주민속촌 등이 만들어져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방사탑도 세워 놓았다. 하지만 콘텐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주의 돌문화를 나타내는 형상물들이 전시 위주로 나열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을 하거나 흥미를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돌문화중 하나인 제주 발담은 2013년 국가중요농업 유산, 2014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발담의 가치를 알리고 보전과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해 해마다 ‘제주발담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방사탑은 발담과 연결하여 세운 경우가 많아 축제에서 ‘방사탑 쌓기’ 등의 주민과 관광객들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방사의 형태는 탑뿐만 아니라 방사담(벽)의 형태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의 돌문화 내지 防禦유적(현실적·외적+심리적·내적)과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

문화재청에서는 지역문화재 활용을 위해 2009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생생 활용사

48)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364쪽.

업, '문화재 夜行',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활용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하거나 지역문화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sup>49)</sup> 제주도에서도 여러 단체가 선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 방어유적인 연대와 봉수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꾸준히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생 대상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이다. 연대와 봉수는 눈앞에 보이는 적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설치된 방어물이라면, 방사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방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어 교육과 체험콘텐츠를 설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방사탑 모양 아로마 향초, 소원을 담아 쌓아올리는 돌탑, 방사탑 굿즈 등 단순한 관광상품이지만 보호 기능과 힐링 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 V. 맺음말

제주문화에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제주인의 문화원형으로서의 神性和 民衆性이 오롯이 내재되어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신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한 제주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창출하고 공유했던 도민들의 생활방식과 가치체계가 녹아 있다. 따라서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과거 제주의 선조들이 우리와는 다른 사상과 관점, 생활양식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활용 과정을 거쳐야

49) 문화재청 홈페이지 참조. <http://search.cha.go.kr>



한다. 이는 제주의 역사문화자원을 해석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보편적 논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재 우리와 후손들이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감하고 지켜낼 수 있는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과정은 보존과 전승 차원에서 문화원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본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17기의 방사탑과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 가능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사탑은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외세와 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바람과 염원이 들어있는 문화의 산물이며 전통사회에서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마을공동체의 상징이다. 마을마다 고유한 풍수와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어 스토리텔링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전통문화의 문화콘텐츠화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 더불어 그 지역의 문화자원에는 지역민들이 공유한 역사적 경험과 삶의 방식이 녹아 있어 보존과 전승, 활용에 지역민이 참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으며 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회적 결속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와도 각기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이를 기반으로 넓게는 한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2. 단행본

강성복, 『탐신앙』,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원 8, 국립무형유산원, 2015.

강정효, 『제주거육대-제주자연마을의 방사용 돌탑보고서』, 각출판사, 2008.

김형효, 「돌탑[石塔]」,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1』, 국립민속박물관, 2010.

이필영, 『마을신앙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4.

\_\_\_\_\_, 「탑제(塔祭)」, 『한국민속신앙사전: 마을신앙 2』, 국립민속박물관, 20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 서귀포시 V』, 20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 제주시 VI』, 2014.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최원석, 『한국의 비보풍수』, 민속원, 2004.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1992.

3. 연구논문

강성복, 「한국의 탐신앙에 관한 연구」, 『제12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수상논문집), 전국 문화원 연합회, 2009.

강창언, 「제주도의 방사용 탑」, 『제주도사연구』 4집, 제주도사연구회, 1995.

\_\_\_\_\_, 「한국의 탐신앙에 관한 연구」, 『마을신앙』, 민속원, 2009.

김동전, 「문화의 시대 21세기 제주역사문화의 현재적 의미와 활용」, 『한국소성가공학회 학술 대회논문집』, 한국소성가공학회, 2010.

김순이,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선정 기준」, 『제주문화 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자료 집』,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최, 2008.

김형남, 「제주도 마을의 돌문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11권1호, 한국농촌건축학회, 2009.

- 양종렬, 「제주도(島) 문화관광 상품자원으로 방사신앙체의 몇 가지」, 『인류학·고고학 논총』, 학연문화사, 2012.
- 이종철, 「장승의 현지유형에 관한 시고」 문화인류학 제18차 한국문화인류학회.
- 전영준, 「제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문화콘텐츠 기획방향」, 『탐라문화』 49호, 탐라문화연구원, 2015.
- \_\_\_\_\_, 「史料로 본 전근대사회 제주의 기상 변화와 대응」, 『제주학회학술발표논문집』, 2014 권2호, 제주학회, 2014.
- 鄭勝謨, 「조선후기의 문화」, 『한국사』 35, 국사편찬위원회, 2002.
- 주강현, 「제주문화상징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제주문화 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자료집』,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최, 2008.1.9.
- 최지희·김면, 「제주의 돌문화 가치와 지역중심 문화콘텐츠 활용에 관한 연구—돌하르방과 동 자석을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8권 3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18.
- 崔昌祚, 「고려전기의 종교와 사상」, 『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2002.
- 표인주, 「영산강유역 마을의 신앙적 조형물의 특징: 장승, 입석, 솟대, 조탑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44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
- \_\_\_\_\_, 「입석과 조탑의 민속학적 고찰」,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 집문당, 1996.
- 이필영, 「충남 금산의탑신앙 연구」, 『백제연구』 제19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88.
- 이창언, 양종렬, 「도서지역 돌탑유적의 현황과 보존-제주도와 경남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4, 동아인문학회, 2006.

#### 4. 학위논문

-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학교사회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98.
- 정은선, 「제주도의 답과 거옥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미술교육과 석사학위논문, 1999.

ABSTRACT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construction of Jeju Island's Bangsa tower and How to use cultural contents

Ko, Su-mi\*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Jeju hav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due to the central culture elements that have flowed into Jeju 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islands during the process of medievalization and modernization.

In recent years, Jeju has been interested in the economic value of Jeju culture formed in historical time and space and seeks to secur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of Jeju culture originally. As a result, it is making efforts to create new cultural contents and to expand related cultural industry by using original culture.

These efforts show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into 'Jeju culture in the world' within the proposition of 'preserving cultural diversity'.

Religion associated with the stone tower is a representative village community faith distributed throughout Korea and wishes to the well-being and abundance of the village. In the case of Jeju Island, towers and stone walls for preventing misfortune(Bangsa tower) played the role. It is a symbol of the village community that tried to overcome disaster through cooperation in traditional society. It is also a historical resource that can be utilized as cultural contents because historical experience and life style shared by local people are mixed.

---

\* Adjunct instructor, Jeju National University.

Therefore, if local residents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preservation and use of contents, they will be able to feel cultural pride, thereby preserving cultural diversity and achieving social solidarity.

Key-words: the culture of Jeju, cultural contents, Religion associated with the stone tower, stone culture, towers and stone walls for preventing misfortune(Bangsa tower)

논문투고일: 2019. 01. 02.

심사완료일: 2019. 01. 24.

게재확정일: 2019. 01. 25.

K C I